

# 세계불교지도자 12인, 기후변화 심각성 '경고'

### 달라이라마·자승 스님 등, 10월 29일 '불교기후변화성명서' 발표

“우리가 한 행동의 결과 때문에 우리는 다른 종과 함께 생존의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기후변화의 속도를 늦추고 그 영향을 제한할 시간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다가올 파리기후정상회의에서는 화석연료 사용을 중단하는 길을 만들어야 합니다.”

북극 해빙(海水)과 티베트 고원시대 빙하가 녹아갈 수록 세계 불교지도자들의 애간장도 타들어간다. 편리와 산업발달을 추구하며 인간이 자행해 온 자연 파괴가 결국 인류를 위협하는 인과응보를 내을 것이란 우려다.

이에 세계 불교지도자들은 오는 11월 27일~12월 12일 열릴 '21차 파리기후총회' 관련 세계지도자들에게 보내는 불교 기후변화 성명서를 공식 발표했다. 이는 세계 고위 불교지도자 12명이 정치 지도자들에게 UN기후변화총회에서 효력 있는 기후변화 협약을 채택할 것을 요구한 것이다. 성명서에는 한국 대표로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이

름을 올렸다.

세계불교지도자 12인은 “우리의 우려는 ‘우주 모든 것이 서로 연관돼 있다’는 붓다의 연기적 깨달음에 토대를 둔다”면서 “우리가 들이쉬는 숨, 마시는 물, 먹는 음식을 통해 사연세계와 불가분하게 연관돼 있음에도 그 사실을 쉽게 잊는다. 통찰력 부족으로 인간과 모든 존재가 상호 의존하고 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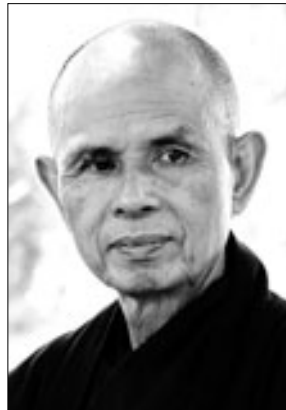
**환경문제 '붓다 연기관'과 관련  
화석연료 중단·재원 확장 등  
파리 UN기후변화총회에 촉구  
'효력 있는 협약 채택해야'**

는 그 생명유지 시스템을 파괴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세계불교지도자 12인은 이러한 악순환을 끊어내기 위한 해결책이 다가올 '파리 기후협상'에 있다고 주장했다. 세계불교지도자 12인은 “과학자들은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1.5℃이하로 제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현실가능하다고 전망



14대 달라이라마(Dalai Lama)



틱 낫한(Thich Nhat Hanh)



자승 스님

했다”면서 “화석연료 퇴출과 100% 재생 가능한 청정에너지로 전환은 국제, 저탄소 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우리로 하여금 영적 방식을 시작하도록 도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세계 불교지도자들은 파리기후총회 당사국들에 대해 스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제3조에 명시된 기후변화의 단계적 중단 및 재생가능한 청정에너지로 전환 △국가별 기후영향에 따른 탄소배출 격차를 좁히는 정치적 의지를 보일 것 △개발도상국들의 기후영향 대비 및 저탄소 경제발전 지원을 위해 녹색기후기금(GCF) 등 1천억 달러 이상 재원을 확대할 것 등

구했다. 이와 관련 GBCCC는 “전 세계 10억명 이상 불교인구를 대표하는 지도자들이 세계 정치지도자들에게 기후변화에 대한 행동을 긴급히 요구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며 “수많은 불교지도자들이 처음으로 국제적 사안에 대해 한 목소리를 냈다”고 평가했다.

한편 이번 성명서에는 14대 달라이라마, 틱 낫한 스님, 자승 스님, 17대 까르마파, 몽골·미얀마·스리랑카·베트남 등 불교교단 총정, 미국불교연합 의장, 프랑스불교연합 의장, 부탄왕실의 아시 케상 왕모 왕족 공주 등 동참했다.

박익률 기자 pak502482@hyunbul.com

# 네팔 스님, 영국 노동자 지원 나서다

### 석유·해양산업 침체되며 실직자 증가... 지원금 마련 등 '앞장'

영국 스코틀랜드 애버딘(Aberdeen)에서 네팔 불교계 스님이 지역 노동자들의 고난을 함께 이겨내고 있어 화제다.

'Energy Voice'는 11월 2일 “북해 연안에 있는 도시, 애버딘에서 ‘바라운야(Varaunya) 명상센터’를 운영하는 수잔(Sujan·사진) 스님이 애버딘 지역의 석유산업과 해양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아픔을 나누며, 그들의 권익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고 보도했다.

“애버딘 지역 석유산업과 해양산업 침체로 관련 종사자, 특히 노동자들의 삶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고 설명한 수잔 스님은 “일자리를 잃고 불확실한 미래와 직면한 노동자들은 지난 4월 대지진을 겪은 네팔 국민을 도왔던 고타문 분를”이라며 “그들의 아픔을 달래고 힘을 더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수잔 스님은 네팔에서 지진이 발생하자 애버딘 지역 사회에 네팔 구호 모금을 호소했고, 이에 가장 먼저 응답한 계층이 바로 석유산업과 해양산업의 노동자들이었다. 당시 수잔 스님은 이들 노동자의 도움으로 약 7천 파운드(약 1천 260만 원)의 긴급구호기금을 모금할 수 있었다.

“지역 노동자들의 관대함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는 수잔 스님은 “이제는 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적극 나서고 싶다”며 “애버딘의 노동자들이 따뜻한 크리스마스를 맞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Energy Voice'에 따르면 스님은 현재 다양한 매체를 방문하며 석유산업과



해양산업에 종사했던 실제 노동자의 곤궁한 삶을 알리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와 함께 그들을 위한 복지 기금을 조성하는 데도 앞장서고 나서고 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며 지역 노동자들의 시름이 커지고 있다”고 전한 수잔 스님은 “성과를 내기에는 아직까지 역부족”이라며 아쉬움을 토로하고 “그래도 이들의 시름이 지역 사회에 알려지면서 지원을 전하는 시민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애버딘은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세 번째로 인구가 많은 도시다. 원래는 농업과 면직업으로 유명했으나, 1970년대 북해 유전이 개발되면서 ‘유럽의 기름 수도’로 불릴 정도로 석유산업과 해양산업의 중심지가 되었다.

그러나 ‘지급의 채굴속도’라던 후 10년 내 북해 원유와 가스가 고갈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며 석유산업과 해양산업은 침체의 길로 들어섰다. 정부와 관련 기업이 원유 생산량을 현저히 줄이며 구조 조정에 들어간 까닭이다. 오종욱 편집위원

# 美세일즈포스닷컴 본사, '마음 챙김 성역'으로 부상

### 설립자 마크 베니오프, 사내 경영에 명상 프로그램 등 도입

글로벌 기업의 특별한 경영 노하우 공통점을 찾는다면, ‘직원 스트레스 최소화’를 가장 먼저 꼽을 수 있다. 기업 경쟁력이 직원 만족도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이는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등 최고 경영자들이 사내에 ‘명상’이나 ‘마음챙김’ 관련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데 앞장서는 이유기도 하다.

'Business Insider'가 11월 2일 “사내 직원의 스트레스를 줄이려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지역은 글로벌 기업 본사가 많은 미국”이라며 “그 선두에 세일즈포스닷컴(Salesforce.com)과 그 설립자 마크 베니오프(Marc Benioff)가 있다”고 보도했다.

베니오프는 미국의 최고경영자 사이에 ‘수행과 심신을 겸비한 독실한 불자’이자 ‘명상과 마음챙김 전도사’로 통한다.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그의 두 저택 중 한 곳에는 스님이 항상 주석하고 있을 정도다. 베니오프는 “우리는 불안의 시대를 살고 있고, 치유 방법은 오직 명상과 마음 챙김

뿐”이라며 “나는 이런 믿음을 단지 생각에만 머물러 있게 하지 않고 가정과 회사에서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Business Insider'에 따르면 설립자의 생각은 세일즈포스닷컴 근무 환경에서 여실히 나타난다.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세일즈포스닷컴 본사에는 각마다 명상 공간이 설치되어 있고, 온·오프 상에서 스님과 실

**기업경쟁력, 직원만족도에 달려  
스트레스 최소화 위해 '명상' 도입  
명상방 설치, 스님과 상담 등 마련**

시간 상담이 가능하다. ‘명상과 마음 챙김의 성역’ 인 셈이다.

지난 9월에는 샌프란시스코 본사에서 뜻 깊은 자리를 마련했다. 자사의 ‘고객 관계 관리 솔루션’을 이용하고 있는 기업을 초청해 ‘명상과 마음챙김’을 주제로 초청강



글로벌기업 세일즈포스닷컴 설립자 마크 베니오프(Marc Benioff·사진)는 명상 및 마음 챙김 등을 사내 경영 방침에 도입해 눈길을 끈다.

연회를 개최했다.

4백여 기업이 참여한 초청강연회에는 지혜 연구소(Wisdom Labs)를 설립·운영하고 있는 리치 페르난데스(Rich Fernandez) 박사, 구글 공학자에서 명상 전도사로 활동하고 있는 차드 명-탄

(Chade-Meng Tan) 박사, 작가이자 명상 지도자인 타라 브래치(Tara Brach) 박사, 아이들의 정신 건강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혼 재단의 골드 혼(Goldie Hawn) 대표 등이 연단에 섰다.

오종욱 편집위원

# 리타 그로스, 뇌졸중으로 중태

### 美불교계서 불교지도자로 '명망'... 의식 불명 상태

여성주의 비교종교 학자로 주목받고 있는 리타 그로스(Rita Gross·사진) 위스콘신 오를레어대 교수가 뇌졸중 증세로 쓰러져 위독하다고 'Lion's Roar'가 지난달 29일 보도했다. 리타 그로스 교수는 현재 미국 위스콘신에 있는 'Continuing Care Unit'에서 집중 치료를 받고 있다.

'Lion's Roar'는 “리타 그로스 교수의 육체적 상태는 중대 고비를 넘기고 있지만, 의식과 사고는 아직까지 가늠할 수 없다”고 전했다.

리타 그로스 교수가 여성불자를 양성하고 있는 버지니아 민들링 로터스 가든(Mindrolling Lotus Garden)에서 수학하고 있는 바버라 리안(Barbara Ryan) 씨는 “미국 티베트불교공동체는 리타 그로스의 비보에 깊은 슬픔에 빠졌다”며 “교수님의 회복과 부처님의 가피를 간절히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1943년 태어난 리타 그로스 교수는 1975년 시카고대학에서 종교사를 연구해 박사 학위를 받았고, 2년 뒤인 1977년 촉암 트롱파(Chogyam Trungpa) 린포체의 사사로 불교 지도자의 길을 밟았다.

이후 위스콘신 오를레어 대학 강단에 선 리타 그로스 교수는 ‘여성주의 비교종교학자’로서 연구와 저술에 몰두하며 미국 불교계 주목을 받았다. 오종욱 편집위원

인생이라는 여행길을 걷고 있는 이들에게 주는 365일 지혜의 말씀!

삶의 여행자를 위한 365일

성운 감수, 조은자 역  
신국판/양장/컬러  
480쪽/값 23,000원

중국문학과 고전에서 간추린 잠언집!  
동양정신의 정수가 담긴 옛 스님들과 선현들의 말씀들이 매일매일의 삶을 행복으로 이끌어준다.

어린이 반야심경

어른도 함께 보는 알기 쉬운 반야심경 풀이

드디어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춘 반야심경 출간!

어린이의 수준에 맞춘 쉽고 재미 있는 해설, 편안하고 예쁜 삽화들이 어린이들을 행복하고 지혜로운 반야심경의 세계로 이끌어준다.

민병직/신국판/컬러/208쪽/값 11,000원

불보살님

간절한 기도로 불보살님의 가피와 이적을 만난 이야기!

오로지 간절한 믿음과 신심 하나로 자신이 처한 어려움에서 벗어나고 뜻하는 바를 이룬 사람들의 불가사의한 이야기들을 모아 엮었다.

이수경 편지/신국판/336쪽/값 15,000원